

한주간 쉽게 보는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63



Contents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5.10.23~2025.10.29

①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1
- 경제·관광 2
- 지역·사회 2

②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6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10

①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탄소중립, 지방채, 에너지, 생태, 투자
경제·관광	관광객, 청년, 생산, 전환, 성장
지역·사회	불법, 돌봄, 학생, 한라산, 대응

※ 분석 기간 : 25.10.23.~25.10.29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탄소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35 제주 탄소중립 협의체 출범- 한일해협 지사회의, 탄소중립 논의- RE100 및 전전화(全電化) 정책 추진
	지방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4820억 역대 최대 지방채 발행 추진- 도의회,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지방채 발행 목적: 경기 부양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소버스 보급 사업 부진- 'Y자형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제안- RE100 산단 및 가파도 RE100 추진
	생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꽃사슴 유해동물 지정, 비둘기 먹이 금지- 서울시민, 제주 꽃자왈 토지 기부-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 천명 돌파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미정상회담, 2000억 달러 투자 합의- 헬스케어타운 정상화 투자 유치 법안 발의-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 특혜 및 위법 의혹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관광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일일 관광객 최고치 경신 -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회복 전망 -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 5만 명 돌파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사업 - 청년 제주 한 달 살기 프로그램 모집 - MICE·관광 분야 청년 인재 지원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을감자 생산량 10% 감소 전망 - 제주 월동채소 재배지 드론 정밀 조사 - 제주 말 생산농가 손실 심각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암해수단지 RE100 산단 전환 - 제주형 에너지전환 드라이브팀 출범 - 기후위기, 생태농업으로의 전환 요구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 유망 중소기업 8개사 선정 -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100억 조성 - 제주 소득이동성 전국 1위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만명분 필로폰 밀반입 - 22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 한라산 비법정탐방로 출입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촉구 - '제주 돌봄 포럼' 공식 창립 - 제주시 '찾아가는 복지' 성과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생 복싱선수 의식불명 - 수학여행 버스 이정표 충돌 - 교사 사망, 학부모 민원 갑질
	한라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가을 첫 상고대 관측 - 남벽 비법정탐방로 불법 출입 - 탐방로 수어 해설 영상 제작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재난상황관리 역량 미흡 - 외국인 범죄 전담 대응부서 확대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대응

②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2025년 10월 23일~10월 29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864건임
 - 정치·행정 분야 371건, 경제·관광 185건, 지역·사회 308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탄소중립, 지방채, 에너지, 생태, 투자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 ○ 정치 · 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탄소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5 제주 탄소중립 협의체 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와 기후에너지환경부, 2035년 제주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2035 제주 탄소중립 협의체' 공식 발족. 이는 국가 계획(2050년)보다 15년 빠른 제주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법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임 · 협의체는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 전력·수송·건물·자원순환 등 전 부문의 탄소중립 로드맵을 담은 '2035 제주 탄소중립 섬 마스터플랜' 수립 및 입법과제 발굴, 제도 개선 등 실행 기반 강화 계획
-------	------	--

	탄소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해협 지사회의, 탄소중립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월 1일부터 이틀간 서귀포에서 '제33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 개최. 한국 4개 시·도(제주, 부산, 전남, 경남)와 일본 4개 현(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야마구치) 지방정부 수장 참여 · 회의 주제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시책'. 제주도는 '2035 탄소중립 비전' 등을 소개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체계 강화 및 공동교류사업 발굴, 공동성명문 채택 추진 - RE100 및 전전화(全電化) 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 착수보고회' 및 '에너지전환 드라이브 전담팀' 킥오프 회의 개최. 향후 10년간 도민 생활과 산업 전반의 수요자 중심 에너지전환 체계 구축 목표 ·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RE100(재생에너지 100%) 및 전전화(全電化) 실현을 위한 첫걸음으로, 생활 속 에너지전환 사례와 최신 기술 적용 방안 공유 및 정책 실천 계획 구체화
정치·행정	지방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820억 역대 최대 지방채 발행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2026년도 지방채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4820억원으로 확정하고 도의회에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 제출 · 이는 법정 한도액 3840억원보다 980억원 초과한 금액이며,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두 번째 한도 초과 발행 사례임 - 도의회,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지방채 발행계획안 심사. 의원들은 세수 감소 상황 속 발행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하나, 채무 비율 급증(17.36%→20.6%)과 상환 계획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 표명 ·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채 비중 문제, 정부 공공자금채 확보 노력, 새로운 세수 확보 방안 마련, 재정 절감 노력 등을 주문하며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 31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 예정 - 지방채 발행 목적: 경기 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세수 감소와 교부세 감액 등으로 재정 여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 발행된 지방채는 침체된 지역 경제와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주로 활용. 중·장기 재정투자사업(2206억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및 공사(1294억원), 상하수도 사업(1000억원) 등에 투입될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버스 보급 사업 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가 수소버스 민간 보급을 위해 2년간 65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집행률은 5%에 불과. 20대 보급 계획 중 민간 버스회사 1곳이 1대 구입에 그침 · 부진 원인은 연료 공급 인프라 부족으로 지목됨. 도내 수소 충전소가 함덕과 도두 2곳뿐이며 서귀포시에는 전무. 제주시 공영버스 11대 중 4대도 연료

	<p>충전 문제로 미운행, 예산 낭비 지적</p> <p>- 'Y자형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의회, '2035 제주 탄소중립 협의체'에서 'Y자형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핵심 의제로 다룰 것을 제안 · 이는 이재명 정부의 'U자형'(서해안→남해안→동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에 제주를 포함하는 안. 제주의 재생에너지 발전 제한 문제를 해소하고, 주자해 상풍력 등에서 생산된 잉여 전력을 육지로 전송하기 위해 국가적 계통 접속 계획이 필수적이라고 강조 <p>- RE100 산단 및 가파도 RE100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산자중기위,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 현장 시찰. 오영훈 지사, 올해 두 차례 일시적 RE100 달성을 성과 공유하며 용암해수산단을 RE100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국회 지원 요청 · 정부, 가파도에 국비 220억원을 투입해 '가파도 RE100마을 조성 사업' 추진 예정. 과거 '탄소 없는 섬' 사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제주형 분산에너지 정책의 나침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도의회 조언
정치·행정	<p>- 꽃사슴 유해동물 지정, 비둘기 먹이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개정안 도의회 제출 예정. 개정안은 서식 밀도가 높아 농림수산업과 한라산 식생 등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을 유해 야생동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 포함 · 또한, 주택가 위생 문제, 건물 훼손 등을 유발하는 집비둘기 등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 도시공원, 시장, 문화유산 보호구역 등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p>- 서울시민, 제주 곶자왈 토지 기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에 거주하는 이신숙 씨,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일대 곶자왈 토지 3320㎡(3652만원 상당)를 제주도에 무상 기부 · 기부된 토지는 경관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 등으로 지정된 환경적 가치가 높은 곳. 제주도는 곶자왈 보전 기반 확충과 난개발 예방에 기여한 의미 있는 실천이라 평가하며 기부자에게 감사패 전달 <p>-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 천명 돌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멸종위기종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와 생태법인 제도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 가입자 수 1307명 기록. 이는 연내 목표였던 1000명을 조기 달성한 것이며, 출범 8개월 만에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 · 서포터즈는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전 연령대에 고루 분포하며, 특히 제주 해녀 86명도 참여. 도는 11월 29~30일 제주공항에서 '서포터즈의 날' 행사 를 개최해 생태법인 지정 공감대 확산 예정
투자	<p>- 한미정상회담, 2000억 달러 투자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EC이 열리는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 · 관세 협상 세부 내용 합의. 핵심 쟁점이었던 대미 현금투자는 2000억 달러

정치·행정	투자	<p>(연간 상한 200억 달러), 한미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하기로 합의. 협상 타결로 한국산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헬스케어타운 정상화 투자 유치 법안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지그룹의 사업 포기로 8년째 공사가 중단된 제주헬스케어타운 정상화를 위한 법안 국회 발의 ·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JDC 등 공공시행자가 미준공 상태의 부지를 신규 투자자에게 매각·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와 재산세 일부 감면 내용 포함 -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 특혜 및 위법 의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화가 추진하는 1조 7천억 규모의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 관련,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의혹 제기 · 사업 미승인 상태에서 제주도가 혈세를 투입해 상수도 공급 방안을 검토한 '특혜 의혹' 지적. 또한 사업 부지 내 농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미경작 방치)이 10년 넘게 방치됐음에도 제주시는 처분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	---

- 경제·관광 보도자료의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관광객, 청년, 생 산, 전환, 성장 등으로 나타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경제·관광	관광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일일 관광객 최고치 경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설명1: 10월 24일 제주 일일 방문객 5만 2145명으로 올해 최고치 기록 경신. 이는 10월 들어 세 번째 최고 기록이며, 추석 연휴 이후 주춤했던 관광 시장의 완연한 회복세를 증명함. 연초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으나 최근 반등세에 힘입어 전년 대비 증감률이 -1% 수준으로 회복됨 · 내용 설명2: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 모두 증가 추세. 개별자유여행(FIT), 가족 단위 방문객 꾸준히 증가. 가을철에는 한라산 등산, 오름 트레킹 등 레저형 소규모 단체 여행이 증가하고, 수학여행 및 MICE 수요도 뚜렷하게 늘어나는 등 방문 형태가 다양해짐 -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회복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설명1: 올해 입도 외국인 관광객 누계(10월 25일 기준) 191만 1229명 달성, 지난해 연간 인원(190만 5696명)을 이미 넘어섰. 11월 중 200만 명대 진입이 전망되며, 이는 사드 사태와 코로나19 이후 100만 명대 회복에 이은 200만 명대 회복임. K-컬처 열풍과 국제선 재개, 크루즈 입항 증가가 주요 원인 · 내용 설명2: 특히 대만 시장이 급성장하여 올해 1~9월 16만 1000명을 넘어 서며 지난해 연간 실적을 초과함. 대만은 중국에 이어 2위 시장이며, 진에어 재취항 등으로 제주-대만 항공 노선이 주 38편까지 확대됨 -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 5만 명 돌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설명1: 제주도가 올해 선보인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NOWDA)' 가입자가 출시 두 달여 만에 5만 명을 돌파함. 4만 명 돌파 이후 약 2주 만에 1만 명이 추가로 늘어나는 등 빠른 확산세를 보임. 이는 네이버 협업 프로모션과 한국청년회의소(JC) 전국대회 등 오프라인 홍보가 성과를 낸 결과임 · 내용 설명2: '디지털 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 시행(10월 1일)으로 가입자 혜택 확대 근거 마련. 5만 명 달성 기념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입자 대상 도내 공영관광지 27개소 입장료를 도민 수준으로 할인함. 내년부터는 포인트 기반 2단계 멤버십 할인 적용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설명1: 제주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한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사업' 시행 중. 청년 근로자 10만 원, 기업 15만 원, 제주도 25만 원을 5년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최대 3천만 원의 적립금을 청년에게 지급하는 방식임 · 내용 설명2: 올해 9월 말 기준 도내 260개 기업과 435명의 청년 근로자가 참여 중. 경제통상진흥원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해 사업자등록증 명,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 편의 제공 - 청년 제주 한 달 살기 프로그램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설명1: 제주시와 제주관광공사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 사업의 일환으로 '2025 청년드림, 제주애(愛) 올레(Olle)?' 참가자 모집. 도외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총 65팀(팀당 최대 2명)을 선발할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설명2: 참가자는 최소 21일 이상 제주시 읍·면 지역에 체류하며 전통시장, 농촌체험 등 지역자원을 체험하고 SNS 홍보 활동 전개. 숙소는 읍·면 지역에서 자율 선택 가능하며, 카름스테이 등 이용 시 가점 부여. 팀당 최대 70만 원의 숙박비 지원 - MICE·관광 분야 청년 인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설명1: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가 '제주지역특화 MICE·관광기업 청년인재 지원사업'을 7년째 지속하며 청년 인재 양성. 제주도와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청년에게 MICE·관광 분야의 안정적 일자리와 현장 직무경험 제공이 목적임 내용 설명2: 현재 약 10개 기업이 참여 중이며, 해당 기업에 채용된 청년 인재에게 연 2400만 원의 지원금을 월별 지급함. 특히 올해 3년차에 접어든 청년에게는 연 최대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분기별로 지급하며 지역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함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을감자 생산량 10% 감소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설명1: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과 강수량 증가로 올해 전국 가을감자 생산량이 전년 대비 10.0%, 평년 대비 8.6% 감소한 2만 5000t 내외로 전망됨. 특히 제주는 파종 직후 잣은 비로 인해 발아율이 저조하고 생육이 부진한 것으로 조사됨 내용 설명2: 생산량 감소는 재배면적 감소(-7.6%)와 단수 감소(-3.0%)가 주요 원인임. 11월 출하량 감소 영향으로 가락시장 감자 상품가격(20kg)은 4만 원 내외로, 전년 대비 25.8%, 평년 대비 18.4%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경제·관광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월동채소 재배지 드론 정밀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설명1: 제주도가 드론 항공영상을 활용하여 도내 전역 농경지 5만 6000ha의 월동채소 재배면적을 정밀 조사하는 '월동채소 재배면적 드론 관측 사업'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함. 농림축산식품부의 팜맵(Farm Map)을 기반으로 드론 촬영 영상을 분석, 품목별 재배면적을 산출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방식임 내용 설명2: 드론 촬영은 10월 말~11월 초(1차)와 12월 초(2차)에 걸쳐 실시하며, 2종 교차 검수와 현장 답사를 병행해 정확도를 높일 계획임. 조사 결과는 주요 월동채소의 예상 생산량 산출 근거로 활용되며, 수급대책 마련에 사용될 방침임 - 제주 말 생산농가 손실 심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설명1: 2023년 기준 전국 말 생산 농가가 40억 원 넘는 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제1호 말산업 특구인 제주의 손실 규모가 43억 8010만 원으로 전국 총손실의 95.51%에 달하며 제주마 생산업이 존폐 위기에 처함. 코로나 이후 경주마 경매 낙찰률 급감으로 농가 어려움이 가중됨 내용 설명2: 국정감사에서 한국마사회가 임직원 성과급(10년간 531억 원)에 몰두하고 말산업 지원(매출의 8%)은 외면한다는 지적 제기. 특히 말 생산자에게 지원된 예산은 성과급의 절반도 안 되는 271억 원에 불과했으며, 2023년에는 성과급 96억 원 대비 생산자 지원금은 16억 원에 그침

경제·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암해수단지 RE100 산단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설명1: 제주도가 국정감사 현장 시찰차 방문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산중위)에 제주시 구좌읍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를 'RE100 산업단지'로 전환할 계획을 공식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함.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것을 의미함 내용 설명2: 오영훈 지사는 제주가 10월 27일에도 일시적 RE100을 달성했음을 강조하며, 좋은 전기를 생산해 필요한 기업을 유치하는 계획 실현을 위한 국회 관심 당부. 산업단지 확장,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주민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 기업과 마을이 상생하는 모델 구축 방침 - 제주형 에너지전환 드라이브팀 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설명1: 제주도가 도민 생활 속 에너지전환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31일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 착수보고회' 및 '에너지전환 드라이브 전담팀' 킥오프 회의를 개최함. 유관부서, 기관, 민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RE100 및 전전화(全電化) 사업 발굴 사례와 정책 방향 논의 내용 설명2: 제주도는 '에너지 대전환 2035 탄소중립 비전' 선포 이후, 생활과 산업 전 영역에서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추진 중임. 9월 구성된 전담팀을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 기반의 전환 체계를 구축하고 RE100·전전화 실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계획임 - 기후위기, 생태농업으로의 전환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설명1: 다른제주연구소 설문조사 결과, 제주 농민 95% 이상이 폭염·폭우 등 기후위기가 농업에 끼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응답함. 농민 다수가 병충해 증가, 생산비 증가, 수확량 감소 등을 경험했으며, 67%는 온열질환 등 건강이 상도 경험함 내용 설명2: 정부와 제주도정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54%가 '잘못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함. 특히 스마트팜, 디지털전환 등 현 정책이 대규모농업 중심이라고 비판하며,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농과 고령 농민을 고려한 '생태농업'으로의 전환과 새로운 대안 마련을 요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 유망 중소기업 8개사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설명1: 제주도가 기술력과 경영역량, 일자리 창출 공헌도 등을 평가해 '2025년 성장 유망 중소기업' 8개사(신규 6, 재선정 2)를 최종 확정함. 이 사업은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제주 경제의 핵심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행됨 내용 설명2: 선정된 기업은 안신하이텍(주), 원디텍(주), (주)우성, (주)젯트, (주)화이브행크, 하효살롱협동조합 등임. 이들 기업은 향후 2년간 중소기업육성 자금 금리 우대(3%), 재산세 50% 감면, 신용보증 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됨 -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100억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설명1: 제주와 일본이 100억 원 규모의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조성을 추진함. 펀드는 양국의 자본과 네트워크를 결합해 스타트업의 공동 성장과 상호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글로벌 협력 펀드임. 중기부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자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운용사로 선정됨

경제·관광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설명2: 제주도, 한국모태펀드, 재일교포 및 일본 기업 등이 출자자로 참여하며 올해 내 결성을 목표로 함. 결성 후, 제주 및 비수도권 지역의 초격차 분야(AI, 친환경에너지 등) 혁신기업에 60% 이상 투자하고 일본 시장 진출 및 후속 투자 유치를 지원할 계획임 - 제주 소득이동성 전국 1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설명1: 국가데이터처 '2023년 소득이동통계' 결과, 제주의 소득이동성이 35.5%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상향이동성(17.9%)은 전국 1위, 하향이동성(17.6%)은 인천에 이어 2위를 기록함 내용 설명2: 소득이동성이 높은 것은 노동 성과에 따른 사회 이동이 가능함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경제적 안정성이 낮다는 의미로도 해석됨. 서비스업 편중 산업구조와 안정적 일자리 부족이 원인으로 추측되며, 소득 변동성이 큰 것으로 분석됨
-------	----	--

- 지역 · 사회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불법, 돌봄, 학생, 한라산, 대웅 등으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 ○ 지역 · 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지역·사회	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4만명분 필로폰 밀반입<ul style="list-style-type: none">· 30대 중국인 A씨가 필로폰 1.2kg(시가 8억 4천만원 상당)을 제주에 밀반입한 혐의로 긴급 체포됨. 이는 약 4만여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임. A씨는 23일 태국에서 출발해 싱가포르를 경유, 24일 제주국제공항

		<p>으로 입국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약을 '차(茶) 봉지'로 위장해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반입했으나, 공항 세관에서는 적발하지 못하고 통과한 것으로 확인됨. 이후 SNS로 '서울 배송'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려다, 물건을 받은 B씨가 '폭발물 의심'으로 신고하며 덜미가 잡힘 <p>- 22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경찰청이 올해 1월부터 불법 사이버도박을 집중 단속해,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운영자 21명(6명 구속)과 상습 도박행위자 39명 등 총 60명을 검거함.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의 총 베팅 금액은 220억 원대에 달하며, 범죄수익금 2억 5천만원을 환수 조치함 이들은 성인PC방이나 학교 주변 빌라 등을 개조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함. 특히 고등학생 5명도 도박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운영자들은 학생들에게 연 최고 650%의 고리(불법사금융)로 도박자금을 빌려준 혐의도 받음 <p>- 한라산 비법정탐방로 출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와 국립공원공단이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한라산국립공원에서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한 합동 단속을 실시함 단속 결과, 낙석 및 훼손 위험으로 탐방이 금지된 '한라산 남벽' 비법정탐방로를 통해 백록담 분화구에 진입한 탐방객 5명을 적발함. 이들에게는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1인당 20만원씩 총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지역·사회	돌봄	<p>-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월 29일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촉구함 돌봄노동자들이 평균임금 160여 만원의 저임금과 고용불안, 최저임금, 성희롱, 갑질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다고 주장함. 정부를 향해 국공립 시설 확대, 통합돌봄지원법을 통한 국가 책임 공공돌봄체계 구축을 요구함 <p>- '제주 돌봄 포럼' 공식 창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29일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회관에서 '제주 돌봄 포럼' 창립 및 업무협약식이 개최됨 이 포럼은 제주지역 돌봄 논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로, 제주도사회복지 협의회,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제주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3개 기관이 참여함. 향후 정기 세미나, 토론회, 강연회 등을 통해 지역 사회 돌봄 체계 운영 지원 및 정책 동향을 공유할 계획임 <p>- 제주시 '찾아가는 복지'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심화 컨설팅 성과공유회'에서 전국 우수사례를 발표함 폭염 속 고장 난 차량에서 10년간 은둔 생활을 하던 50대 남성을 발굴한 사례가 소개됨. 주민센터와 경찰이 협동 설득해 임시 거주지로 이주 시켰으며, 기초생활보장 신청, 제주가치돌봄 도시락 지원, 건강 문제 연계 등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함

	<p>학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생 복싱선수 의식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9월 3일 서귀포시에서 열린 '제55회 대통령배 전국 시도복싱대회'에 참가한 10대 중학생 선수가 경기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함 · 피해 학생은 병원으로 이송돼 뇌수술을 받았으나 한 달 넘게 의식불명 상태임. 경찰은 대한복싱협회 사무처장, 심판, 관장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며, 당시 대회장에 의료진이 없었고 응급체계가 미비했던 것으로 드러남 - 수학여행 버스 이정표 충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일 오전 8시 52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인근 교차로에서 경기 파주 소재 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을 태운 전세버스가 도로 이정표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 60대 A씨가 중상을 입고, 학생 24명, 교직원 3명, 가이드 1명 등 탑승자 28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됨. 경찰은 운전자 A씨가 운전 중 지병으로 인한 의식 저하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함 - 교사 사망, 학부모 민원 갑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5월 도내 한 중학교 교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생 가족 A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공식 인정함 · 교권보호위는 A씨가 숨진 교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상급 기관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행위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이에 법정 최고 수준의 처분인 '특별교육 8시간 이수'를 결정함
<p>지역·사회</p>	<p>한라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가을 첫 상고대 관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8일 아침 제주 한라산 백록담 인근에서 올가을 첫 상고대가 관측됨. 이는 지난해 11월 6일보다 9일 빠른 기록임 ·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윗세오름 영하 1.4°C, 한라산남벽 영하 0.5°C 등 높은 산지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짐. 상고대는 대기 중 구름이나 안개 입자가 나뭇가지 등에 부딪혀 얼어붙는 현상을 말함 - 남벽 비법정탐방로 불법 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와 국립공원공단이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한라산국립공원에서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한 합동 단속을 실시함 · 단속 결과, 낙석 및 훼손 우려로 탐방이 금지된 '한라산 남벽' 비법정탐방로를 통해 백록담 분화구에 진입한 탐방객 5명을 적발함. 이들은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1인당 20만원씩 총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음 - 탐방로 수어 해설 영상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수어통역센터가 제주 관광지에 대한 수어 해설 영상과 흥보물을 제작해 배포함 · 특히 정보 접근이 어려웠던 한라산국립공원 탐방로 전 구간에 대한 수어 해설 영상을 제작해, 관광지 매표소 QR코드 등을 통해 한국수어 및 국제수화로 생생한 영상 체험이 가능해짐. 하반기 안내판 교체 사업 시 QR코드를 표기할 예정임

지역·사회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재난상황관리 역량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의 '2025년 상반기 재난상황관리 훈련' 평가 결과, 제주도의 점수가 83.5점으로 전국 평균(83.6점)보다 낮아 대응 역량 보완이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지난해 89.7점에 이어 2년 연속 평균을 하회한 수치임 · 한편, 제주도는 28일 제주국제공항에서 항공기 사고 및 대테러 상황을 가정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함. 또한 31일에는 서귀포시 '박물관은 살아있다'에서 다중밀집시설 화재 사고 대응 훈련을 실시 할 예정임 - 외국인 범죄 전담 대응부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귀포경찰서가 증가하는 체류외국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전담 대응부서를 기존 형사 1개팀에서 수사·형사 4개팀으로 확대 운영 중임 · 전담부서 확대 운영 후 5개월간 서귀포 지역 외국인 범죄 검거 건수는 4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건) 대비 14.6% 증가하는 성과를 거둠. 또한 불법체류자 14명을 검거하고 외국인 관련 112신고 180건을 처리 하는 등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함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가 '청정 제주 숲 회복'을 목표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본격 대응한다고 28일 밝힘 · 현재 피해등급 '중' 지역인 제주도를 2027년까지 '경' 지역으로 낮추기 위해 '2026년 방제 추진계획'을 수립함. 2026년 5월까지 집중방제기간 동안 피해목 2만 3000그루 제거, 예방 나무주사 1000㏊ 실시 등 77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임
-------	----	---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